

국민주방송 '준비중'

8월부터 주주모집 99년 개국 상성성 탈피 국민의식 대변

국민을 주주로 한 시민문화방송을 표방하는 국민주방송이 오는 99년 개국까지의 본격적인 추진일정을 밝히고 있어 상업화·지질화로 비판받고 있는 방송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국민주방송은 7월중 발기인대회를 열고 97년 8월부터 99년 1월까지 주주모집, 제2회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독립성, 공공성, 평등성, 다양성, 미래지향성 등이 기본이념.

현재 발기인에 동참한 사람은 70여명, 추진위원은 2천여명 선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에서는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국민주방송발기인대회 준비위원회 고문으로,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정각스님(부사참여자치사민연합 공동대표) 효림스님(보통사 주지) 고은 시인 등이 국민주방송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수행자 고뇌 파격 묘사 영화 '유리' 비디오 출시

파격적인 수행자의 기행을 영화화해 불교계의 반향을 샀던 '유리'(감독 안운호)가 최근 공연연예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비디오로 출시됐다. 연소자관람불가 등급으로 심의 통과된 '유리'는 20년전 발표된 박상봉씨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영감으로 풀어낸 영화다.

Form sound taste smell and touch which intoxicate creatures having subdued the desire for all these things, let him in due time go in for his breakfast.

모든 빛, 소리, 냄새, 맛, 촉감은 사람을 도취시킨다.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을 삼가고 정해진 시각에 아침밥을 얻으러 마을에 들어가라.

Let him not kill, nor cause to be killed any living being, nor let him approve of others killing, after having refrained from hurting all creatures both those that are strong and those that tremble in the world.

산 것을 들소 죽여서는 안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도 안된다. 난폭한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 아 한다.

Let the wise man avoid an unchaste life as a burning heap of coals; not being able to live a life of chastity, let him not transgress with another man's life.

술기로온 사람은 음행을 회피하라.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만일 불음(不淨)을 닦을 수가 없더라도, 남의 아내를 밟해서는 안 된다.

Let no one speak falsely to another in the hall of justice or in the hall of the assembly, let him not cause any one to speak falsely, nor approve of those that speak falsely, let him avoid all sort of untruth.

집회의 장소에 있던 단체에 있던 지간에,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서는 안된다. 또 남이 거짓 말하는 것을 묵인해도 안된다. 모든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70

- *intoxication (n) 취함, 도취, 중독
*subdued (a) 가라앉은, 억제된
*tremble (v) 전전긍긍하다, 몹시 걱정하다
*unchaste (a) 정욕하지 못한, 행실이 나쁜
*transgression (v) 범하다, (한도를)벗어나다, 넘다
*assembly (n) 단체
*stupid (a) 어리석은, 미비된, 무감각한

'깨침의 소리' 신뢰회복 급선무

형량사건 이후 불교방송 활로찾기

공급형량사건과 지방국 문제 등으로 민심상이가 된 불교방송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개국 초기와 같은 불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올 1월말 발생한 불교방송 공급형량사건은 김선도 前 경리부 차장 송병욱 前 상무의 정력 구속(6월16·19일)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등으로 아직까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본사의 지방국 운영에 불만을 표시해 오던 부산 광주 대구 청주 등 지방국 4개사가 6월20일 대구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국 광고 수입액의 지방국 자체 집행 △차예 예산으로 설립한 지방국



6월20일 열린 불방특위의 대회의

'다시 태어난다' 초발심 가져야 경영악화·지방국독립 난제 구성원 화합·프로향상 관건

임원의 본사 단원직 이사자격부여 △지방국 설립 및 운영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서울본사에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공급형량사건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지방국들의 재정 및 운영 독립요구 등 불교방송은 활로를 찾지 못한채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공급형량사건과 관련 조계종 중앙총회의 불교방송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성·이하 불방특위)는 6월 21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장에게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띄우기도 했다. 위원장 정대성님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불교방송 경영진과 함께 전문 회계법인을 위촉, 본사 및 지방국을 포함한 불교방송 재무구조 운영방식 등의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보완방안까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밝혔다.

또 지방국 문제와 관련 불교방송 권오연 전무는 "금주 안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지방국과 조직개편문제, 방송 프로그램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고 각 지방국 총괄국장 회의도 자주 열어 의견조정을 가질 계획"이라고 대책을 설명했지만 지방국들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다.

개국초기 불자들의 열렬한 사랑과 기대속에 불음전파에 힘찬 첫발을 내디뎠던 불교방송. 불교방송은 공급형량사건으로 헤매이던 구성원간의 결속을 새롭게 다지고, 양질의 프로그램제작으로 청취자 확보와 불교방송의 위상을 곧추 세워야 한다.

"다시한번 초발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구성원이 단결해 사랑받는 불교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번 불교방송사건을 지켜본 불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 불자들의 무조건 외면보다 애정어린 시선도 BBS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약'으로 풀이된다.

김지연 기자

고난속에 핀 꽃 ①



나와 내 동생은 부모님 얼굴은 물론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내 나이 2살, 동생은 첫돌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우리를 두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울고 있는 우리를 두고 한복차림에 가시던 엄마,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잊을 수 없는 엄마의 뒷모습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된 우리 남매는 여섯살까지는 남부끄러울 것없이 잘 살았다.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군에서 재대하고, 노름에 손을 대면서 집안 살림이 기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쌀가마가 마차에 실려 나가더니 급기야 땅문서 집문서까지, 집안이 속대밭이 됐다. 집도 허물리기 그지없는 초라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

나는 9살에야 겨우 초등학교를 들어갔고, 육성회 비행편을 못내 집으로 쫓겨가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결국 2학년초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일천대 달친 격으로 생활고에 못내던 할머니는 나를 고아원에 보내려 했다. 고아원에 가면 학교도 보내주고 배설기까지 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나는 철없이 친구들에게 고아원에 간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고아원에 가면 매일 일만 시킨다며 불쌍해 했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나는 병이나 끄고 싶지 않아 했다. 결국 작은 아버지가 동네 장피하다며 서류를 찾아버리는 바람에 고아원 얘기는 무산됐다. 그러나 나는 남의 집 아기로는 일, 식모살이를 하면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남의 집살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반쯤 씹은 밥을 물어 행구어 먹어야 했고, 때로는 도둑으로 의심받아야 했다. 어린시절 겪어야 했던 일들은 그렇게 가슴 속 한이 되어 응어리로 남았다. 그렇게 마다 우리를 버려두고 간 엄마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일새없이 일을 해야만 했다. 16살 때 겨우 남의 집에서 벗어나 삼촌이 양장점에 취직시켜 주었고, 할머니와 큰고모의 말슴대로 기술을 익히고 틈틈히 책을 봤다. 할머니와 고모는 이 다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이리저리

서러움이 다 없어진다며 나를 위로했다. 그래서 나에게 '결혼'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25살때, 지금의 남편과 연애결혼을 했다. 한 발 중에 잠을 못이려 잠 안오는 약까지 먹어가며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결혼 두달만에 조그마한 의류공장을 인수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결혼할때 집안이 보잘 것 없다고 탄탄하게 생각하던 시부모님도 좋아했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았다.

그러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연애시절에는 좋지만 했던 남편과 점차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아졌다. 외로움이 커져만 갔다. 삼이 절망스럽기까지 했다.

큰아이가 태어난 직후였다. 텔레비전을 통해 어느 스님의 설법 한 구절을 들을 수 있었다. '자식은 부모에 몸을 빌어 태어났으니 같같은 따로 있다.' 고생스러운 때마다 엄마에 대한 원망과 한스러움으로 응어리져 있던 가슴 속 그 무엇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다. 공장을 인수해 운영을 하던 나는 양장점을 차려 개업을 했다. 별달일이 장사가 잘 돼 한숨 풀리고 있는데 남편이 친구와 건축업을 해보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동안 고생만 했으니 이제 아이들 키우며 쉬라고 나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이 미덥지 못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동업하

다보면 원수가 돼 등돌리기 일쑤라는데,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남자가 하는 일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는다면 화를 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누구와도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어수선하다보니 장사도 안 되었고, 점포도 정리가 되질 않았다. 그러다 절에 간다고 나선 집주인 언니를 따라 절에 가게 되었다. 난생 처음으로 법당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을 보았다. 자애로운 얼굴을 보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체할 수가 없었다. 속이 다 후련했다. 그때부터 나는 초하루와 관음재일에는 배놓지 않고 부처님 전에 머리를 조아렸다.

김종희 (인천시 남동구 민수1동)



그림·이준석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자연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 하지만 생활은 또 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미!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 면역 피부 미용 비누를 사용하세요.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항생제무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갈초, 속지황, 천궁계피등)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신성배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정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첨단의 생명공학 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발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2-1522(총) (02)737-8881(대)



헬기화물운송전문업체

헬리코리아 는 항상 스님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부대중의 건강하신 나날과 하시는 불사가 부처님의 가피로 원만 회향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헬리코리아'는 최신 장비와 20년 이상의 배터랑조종사들이 사찰의 각종불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만전의 준비로 스님들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특히 고산지대 사찰불사에 '헬기' 사용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단축·시간절감 불필요한 인력 해소 등으로 불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효과와 안전사고예방 등 더욱더 효율 있는 불사회향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사현장의 위치 및 '헬기' 이착륙장이 공사비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불사를 계획하고 계신 스님께서는 문의 및 상담을 원하시면 출장 방문하여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헬기비용 산출, 운항허가 등 헬기 사용에 따른 제반 사항)

●●● 헬기 사용 안내 ●●●

- ◆ 문화재 재·개보수 자재운반
◆ 사찰 중·신축시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 및 건설장비 운송
◆ 동절기생활용품 및 각종 불교행사시 필요한 불교용품 운송
◆ 산불방지·환경보호·인명구조 및 긴급인력 수송

▶ 20여 년간 불교계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님들의 불사에 동참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영업담당이사 이주영 함장 (02)565-8056(대) FAX 565-8059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 I 오피스텔 903호) (02)565-8056(대) FAX 565-8059 대전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하동 282-16 (042)633-8900 FAX (042)624-8400